광산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양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 방향 전환
자부담 등 '문턱' 대폭 낮춰
동-중간지원조직 협업 강화

비아동 드루와 청소년 기획단의 비닐없는 장보기 캠페인.

광주 광산구가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기반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민.관 협업으로 방향을 전환, 더 높은 수준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 2022년 오순도순 마을살이와 행복동행 주민공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실험실 ▲광산행복아파트 ▲아파트 대표회의 ▲2030동네친구 만들기 ▲아파트 가족공동체 ▲온라인 주민투표 지원 등 총 7개 유형의 사업으로 특색 있는 주민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꼽힌다.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첨단 2동 주민자치회가 대상을, 광산구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매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그 바탕이 된 것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광산구 곳곳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를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일회성에 머물거나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혼재 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양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지원사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마을의제 해결 위주의 지원 방식을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각 마을공동체를 새내기-형성기-성장기로 구분해 공공성을 확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참여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지원금의 '담보' 수단으로 존재했던 자부담을 모든 유형의 공모사업에서 제외했다. 우편과 이메일로만 가능하던 신청 절차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는 동별 마을활동지원가 현장 접수를 병행하도록 했다. 마을활동지원가 운영 규모와 회계실무지원 기간도 확대했다.

다양화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을실험실 사업(생활 문제 해결)', '2030 동네친구 만들기(20~39세 주민모임)', '아파트 가족공동체' 등 세 가지 사업을 신규로 추가, 공모유형도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각 공모유형에 따라 참여 대상을 마을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로 명확하게 구분해 공동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동 행정, 중간지원조직인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한다. 제출된 공모사업 계획서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우리동네 행복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동 행정-중간지원조직-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전 사업의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짜임새를 높였다"면서 "올해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풀뿌리 자치역량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오순도순 마을살이와 행복동행' 주민공모 사업은 5월 4일과 6일 계획서를 접수한다. 광산구는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 모임,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마을배움터 교육과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로 사업설명회가 금지됨에 따라 광산구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각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 장관기 준우승

황지원 대회 MVP

광주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이 지난 18일 제21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충북 진천군 화랑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은 여자일반부 최해지(49kg급) 선수와 황지원(57kg급) 선수가 금메달을, 김한서 (+73kg급)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황지원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과 스포츠맨쉽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2월 창단한 광산구 여자태권도선수단은 현재 8명(감독 1, 코치 1, 선수 6)의 선수단으로 구성돼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좌식배구 여자국가대표팀 광산구서 전지훈련

항저우아시안 패러게임 출전 대비

대한장애인배구협회(회장 전갑수) 좌식배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4회 아시안 패러게임 좌식배구 부분 메달 획득을 목표로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수완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연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정아 감독과 정성훈 코치, 선수 등 모두 14명으로 이루어진 국가대표팀은 10월 중국 대회를 앞두고 전지훈련 장소로 광주를 선정했으며, 광산구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전지훈련은 전갑수 회장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성사됐다. 국가대표팀은 지난 13일부터 보름 동안 팀워크 향상을 위한 서브, 스파이크, 리시브 등의 훈련과 경기력 유지를 위한 연습경기를 계속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좌식배구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 깊고, 훈련에서 얻어낸 성과로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은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 동안 펼쳐지며 44개국 참가, 22개 종목, 616개 경기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 배구 종목 중 하나인 좌식배구는 남자 1.15m 여자 1.05m 높이의 네트를 사이에 두고 엉덩이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반칙이 선언되며, 서브를 블록 할 수 있는 독특한 룰과 함께 게임이 진행된다. 좌식배구 국가대표 여자 선수단은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4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한편 공단은 오는 6월에도 좌식배구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합동 훈련을 위한 훈련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풍영정천 '행복 꽃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7km 구간 유채꽃·튤립 만개

풍영정천에 만개한 튤립.

광주 광산구는 "도심 속 생태공간인 풍영정천에 유채꽃, 튤립이 만발, 장관을 이루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풍영정천 행복건강길'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수완동에서 운남동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7km 구간에 유채를 파종했다. 또 국제화훼종묘(대표 김미순)에서 기부받은 튤립구근 1만 구도 식재했다.

형형색색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채꽃길과 튤립 장관은 5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온 시민이 봄을 맞아 꽃이 만발한 풍영정천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송정작은미술관 '광산의 별' 특별전

5월 15일까지…지역 작가 작품전

광주 광산구는 "5월 15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에서 광산구 출신 중견작가 특별전인 '광산의 별' 전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문을 연 송정작은미술관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첫 번째 전시다.

광산구는 한의원, 김영화, 윤병학, 배일섭 등 광산구 출신 화가의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서양화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4명의 작가는 각자 시선을 둔 풍경, 사물, 인물,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한의원 작가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소용돌이를, 김영화 작가는 일상의 확장이 된 여행을 주제로 전시를 펼친다.

배일섭 작가는 우리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윤병학 작가는 언어기호를 통해 현대사회의 모순과 비합리적 현상을 담은 작품으로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기질과 작품 스타일이 다른 4명의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고향 광산구'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다.

송정여자중학교 교정, 황룡강 물놀이, 지로지 입구 나무 뽕뽕다리, 선동렬과의 동네 야구, 비행장 등 작가들이 어린 시절 겪었던 광산구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자 자양분이 됐다.

전시는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062-960-3687)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